

“좌충우돌 여행기 독자와 나누고 싶어요”

‘700km 순례길’ 스토리펀딩 연재 차노휘 작가 포르투갈~스페인 산티아고~요르단 순례 ‘64일, 배낭 메고 미련 없이...’ 출판 예정

“사람들의 인정을 찾아 지금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걸어가고 있다. 예수의 열두 제자 중 한 명인 성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이곳에 이르는 수많은 길 중에서 유명한 길 네 군데가 있다. 제일 유명한 길은 작년에 걸었던 프랑스길이다. 그 다음이 지금 내가 걷고 있는 포르투갈 길이다.”

며칠 전 글을 쓰고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차노휘 작가에게서 메일을 받았다. 지금,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였다. 700km에 달하는 이 길을 완주하고 나면 그는 또 다른 여행지로 갈 예정이라고 했다.

광주일보 신춘문예(2009) 출신 차노휘(사진) 작가. 그녀는 지금 방학을 이용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있다. 지난해에는 가장 유명한 길인 프랑스를 거쳐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까지 걸었고 올해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순례길을 걷고 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을 때면 무작정 걷는 버릇이 있다. 이상하게 걷다보면 머릿속도 맑아지고 걸음도 가벼워지더라. 마치 오래도록 못쳐놓았던 것들이 하나하나 풀이되면서 길 위로 뒤흔어오는 것을 느끼곤 하니까.”

이번 여행은 64일간의 일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순례길을 완주하고 나면 바르셀로나에서 이집트 카이로, 요르단을 거쳐 이스라엘에서 귀국할 예정이다. 익히 알려진 진대로 이스라엘과 그 주변국가로 여행하면 여행자 보험도 가입되지 않는 위험한 코스다.



차노휘 작가는 그러나 “계획을 변경할 수가 없었다. 5개월 전에 미리 티켓팅을 했기 때문도 하지만 가고 싶었던 순례길을 꼭 완주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차 작가에게 이번 여행은 예전과 달리 특별하다. ‘출판’을 목적으로 ‘64일, 배낭 메고 미련 없이 걷기’라는 제목으로 스토리펀딩(storyfunding.kakao.com)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 프로젝트는 800만원을 목표로 오는 9월 14일까지 모두 86일간 진행된다.

작년 산티아고 순례길 중 ‘프랑스길’에 이어 이번에는 다른 코스의 순례길과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길을 걷는 것은 좌충우돌 여행 현장을 독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다. 혼자가 아닌 함께 하는 여정을 만들어 가고 이를 토대로 책을 만들고 싶었다.

스토리펀딩은 ‘무명작가들이 의지할 곳’은 기금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

고 독자와 소통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의미있는 방식을 추진해보고 싶었다.

이번 스토리 펀딩은 1회 연재를 하고 펀딩 목적과 작가 약력을 넣은 뒤 심사를 통해 결정됐다. 현재 차 작가의 1회 연재본 ‘사표 품고 또다시 꾸린 배낭’이 올라와 있다.

“작년 여름을 떠올렸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기 시작한 지 23일째였다. 발바닥이 벗겨져서 도저히 걸을 수 없을 때가 있었다. 그녀는 밤새 고민을 하며 잠들었고 결론을 내렸다. 힘들수록 돌아가지 말고 정공법을 택하기로 했다.”

그녀가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6년부터였다. 사람들에게는 ‘우연하게’ 시작했다고 말했지만 필연을 위한 가장일 뿐이었다.

차 작가는 “그당시는 걷는 것만이 현실을 버틸 수 있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민들이 내가 걸었던 거리만큼이나 길게 따라왔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제주도 올레길과 지리산 둘레길을 완주했다. 제주도과 지리산을 걷고 나니 더 넓은 세상을 걷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해 프랑스를 떠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를 거쳐 목시아까지 900km 여정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두 도시 이야기’를 펴냈다. 여행 중에 만났던 이스라엘 청년과의 만남은 지정학적으로 유사한 양국의 처지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다.

차 작가는 이번 여행을 마치고 오면 책을 펴내고 또 어딘가로 떠날지 모르겠다고 했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깨달음 같지만 스스로에게 자유를 주는 가장 귀한 선물인 것 같다는 얘기가.

“무엇보다도 내 걸음걸이 속도를 존중하게 되었다. 내 행보를 존중한다는 것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남의 걸음걸이 속도 또한 존중한다는 의미이다. 자신감이다. 순수한 독립이다. 다른 사람보다 걸음 속도가 느릴 수도 빠를 수도 있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은 한,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

광주문화읽기



김용태 소설가

대중문화 분야의 한류열풍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아니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다. 올해 5월 한국의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메인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일은 그런 맥락에서 상징성이 크다. 이에 비추어 한국 문학의 현실은 어떨까. 2016년 소설가 한강이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하며 화제를 모은 바가 있다. 그러나 문학에 한류란 말을 붙이기에 아직 어색하다. 왜 우리의 문학은 좀처럼 한류열풍에 편승하지 못하는 걸까.

개인적으로 한국의 출판물의 해외 진출이 활성화되어야 지금의 한류열풍을 이어가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K-POP과 K-드라마들이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단적인 면만 보여

부커상 수상이었다. 한국의 출판 시장 구도는 작가와 출판사, 독자라는 삼분법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었다. 작가와 출판사 사이에 다른 존재는 없었다. 그러나 우리와 달리 영미출판시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작가 에이전트들이 활동해왔다. 작가들은 출판사가 아닌 에이전트에게 작품을 보낸다. 그러면 에이전트는 양질의 작품이 될 수 있도록 편집자 역할을 대신 수

우리에게도 작가 에이전트가 필요하다

주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염려도 든다. 현실과의 개인성이 떨어지는 환상은 결국 그 의미가 퇴색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그 2%의 아쉬운 부분을 채우는데 한국 문학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설령 그게 우리 사회의 치부일지라도 말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출판 강국이다. 그러나 출판물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역조 현상이 심각하다. 한강 작가의 맨부커상 수상을 필두로 근래 들어 편혜영, 김중혁, 김인수, 김영하 등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해외에 소개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들려온다. 그러나 여전히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저작물이 월등히 많다. 10대 출판 강국인 한국이 출판물 저작권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다시 한강 소설가의 맨부커상 수상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당시 가장 화제가 된 인물은 당연히 한강 작가 본인일 것이다. ‘체식주의자’를 번역한 데보라 스미스 또한 그에 못지않은 관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보다 내밀하게 들여다본 이들에게는 한 사람이 더 보였을 것이다. 바로 KL메니지먼트의 이규용 대표다. 그는 한국 문학 작품을 해외에 소개하는 일을 2001년부터 꾸준히 해왔다. 그리고 가시적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성과가 한강 소설가의 맨

행해주며 해당 작가에게 어울리는 출판사를 매칭 해준다. 그뿐만 아니라 작품의 저작권 판권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콘텐츠 업체를 물색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판사가 에이전트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고는 하나 대부분 출판사 직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해서 투고된 원고를 제대로 살펴보는 일조차 드문 실정이다. 에이전트가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작품을 찾기 위한 꾸준한 탐독은 물론이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른 나라의 정서와 문화도 파악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짧은 시간에 좋은 에이전트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창작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창작물의 관리에 더 큰 관심이 필요할 때이다. 이제라도 역수출을 준비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작가 에이전트 양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콘텐츠 시장에 해박한 에이전트들의 등장은 작가와 출판 시장, 더 나아가 우리 문화예술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것이다. 개인적으로 문화수도를 장칭하는 광주가 작가 에이전트들을 양성하는 선도지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양림동 예술가 3인을 기리며...순수, 내일 음악회 개최

양림동의 역사문화공간에서 다양한 공연을 펼치고 있는 순수가 오는 27일 오후 7시 30분 오웬기념관에서 양림동 출신 예술가들을 기리는 특별한 음악회를 연다. 순수는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양림동 출신의 음악가 정추를 기리는 정추음악회를 개최해왔다. 올해 추모음악회는 정추 선생 뿐만 아니라 중국의 3대 음악가로 불리는 정용성, 정추의 친형이기도 한 ‘북한영화의 아버지’ 정준채 등 양림동이 낳은 예술가 3인을 기리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정추

정용성

작으로 정용성의 오페라 ‘망부운’의 4막에 등장하는 ‘하늘을 나는 공주와 아백’을 갈라 공연 형식으로 선보인다.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이승규는 콰르텟 12개의 모음곡 ‘양림의 거리’ 중 ‘오웬기념각’, ‘이장우 가옥’ 등을 바이올리니스트 이수산과의 협연으로 연주한다. 피아노 장성훈, 베이스 한수정, 보컬 김희선, 드럼 원익준으로 구성된 재즈 콰르텟은 ‘뗏목의 노래’, ‘산화화’ 등 정추 선생이 직접 작사 작곡한 곡들과 고교의 대표적인 시예곡을 불인 작품들을 재즈 선율로 선보인다. 무료 공연. 문의 062-651-0972. /전은재 기자 ej6621@

‘광주건축대전’ 아이디어 공모전 접수

광주전남건축가회는 올해 제1회 광주건축대전을 시작한다. 공모전, 심포지엄, 전시 등 다양한 행사로 구성된 행사다. 건축가회는 전공 학생과 전공자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 공모전과 함께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중이다.

아이디어 공모전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다양한 공간을 대상으로 새롭게 디자인하거나 개선하는 창의적인 방안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기회이다. 건축, 실내디자인, 조경, 도시 관련 전공을 꿈꾸는 이나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초년생, 주부, 중고등학생, 시니어 등 누구나 생활 속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응모할 수 있다.

마을가꾸기, 도시재생, 유희시설 활용과 관련된 제안을 비롯해 보행로, 가로시설물, 화단, 도로 및 공공거리 등 개방된 공간의 정비와 이에 관련된 제안도 가능하다. 또 공원, 놀이터, 커뮤니티공간, 주차공간 등에 대한 제안과 생활환경, 건축 공간구성, 구조물에 관련된 제안도 제출할 수 있다.

아이디어는 A3 사이즈 2매 이내로 그림, 스케치, 글, 사진 등을 활용해 수작업이나 디지털작업을 통해 자유롭게 나타내면 되며 총 2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마감은 오는 7월 4일까지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CHANNEL A

매주 목요일 밤 11시

이덕화 | 이경규 | 마이크로닷